

테마형 커뮤니티디자인을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 방향 고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그룹 역할 및 유형분석을 통해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Rural Community through Thematic
Community Design

Through action group role of rural new vigor plus business and analysis of its type

주 저 자 : 하봉수 (Ha, Bong Soo)

동양대학교 교수

see@daum.net

Abstract

This dissertation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matic community as regional community activation method by classifying type of action group(147 groups) which can be said to be pivotal activity organization for rural new vigor plus business by investigating their character, i.e., whether they are organized to play certain role. In conclusion, action group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economic community, culture·tour community and thematic communit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y are concentrated on economic community which aims to create income. After all, new vigor plus business emphasizes the promotion of business in the character of software and human ware than hardware. Considering that the utilization and connection of diverse infra built in existi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business i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matic community which can connect & link many people as efficiently as organization of specific purpose without being limited to geographic relation or consanguinity. Thus, the necessity of community design is suggested, that is, finding thematic community and expanding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active utilization of outdoors unused space and politic support for it, creating synergy effect through cooperation between communities, ensuring continuity of community through connection between generations.

Keyword

Rural community(농촌 공동체), Thematic community Design(테마형 커뮤니티디자인), Utilization of outdoors unused spaceFlexible(옥외 유희공간 활용)

요약

본고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있어 핵심적 활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액션그룹(147단체)을 대상으로 과연 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공동체인지 그 성격을 조사해 유형을 분류하고, 조직 운용상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향으로 테마형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액션그룹은 크게 경제적 커뮤니티, 문화·관광형 커뮤니티, 테마형 커뮤니티로 분류할 수 있고, 소득창출에 목적을 둔 경제적 커뮤니티에 편중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보다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성격의 사업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고,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구축된 다양한 인프라의 활용과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목적성 조직 못지않게 지리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어줄 수 있는 테마형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이에 테마형 커뮤니티의 발굴과 참여기회 확대, 옥외 유희공간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커뮤니티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세대간 연계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 등 커뮤니티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대상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농촌사회의 현실
- 2-2. 공동체 구성요소
- 2-3. 테마형 커뮤니티디자인

3. 사례분석

- 3-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액션그룹
- 3-2. 액션그룹 현황 및 유형

4. 결론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재생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경우, 주민으로부터 사업아이디어가 제안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주민주도의 사업의 경우 개인보다 공동체적 유대감이 강한 조직의 적극적 참여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공동체(Community)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지역이나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¹⁾. 오늘날 전통적인 사회의 주민들의 삶에서 볼 수 있었던 지역적 고립성, 빈번한 대면과 긴밀한 상호작용, 유대감이 일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공간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라지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은 현저히 퇴색되고 있다. 때문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시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들의 역량을 단기간에 육성하겠다는 의욕적 사업을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촌지역의 사회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커뮤니티의 부활이 중요하고, 커뮤니티를 과거와 같이 지리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사람들을 연결하고 이어줄 수 있는 다양한 테마형 커뮤니티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핵심이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과연 이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지 커뮤니티의 성격을 조사해 유형을 분류하고, 조직 및 조직간의 협력 등 커뮤니티 운용상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공은 물론

1) 윤소영, 지역의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Vol.5 No.2, 2010, pp.1-13

참고문헌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조직 및 운용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발견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공동체 개념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따른 현상을 이론적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테마형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특히 테마형 커뮤니티와 유희공간 활용에 주목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2~3년 사이에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가 승인된 7개 지역과 예비계획서가 승인된 영주시를 포함, 총 8개 지역의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다²⁾.(표 1) 연구는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있어 활동주체이자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액션그룹에 초점을 맞추어 각 지역의 계획서상에 기술된 모든 액션그룹을 정리하고, 이들 조직이 어떤 유형의 공동체인지 고찰함과 동시에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액션그룹의 성격 및 역할규정을 통해 과연 농촌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및 공동체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 방향을 도출한다.

[표 1] 대상지역 및 참고자료(가나다순)

구분	참고자료	비고
1	고령군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1
2	남해군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1
3	영덕군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2
4	영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 예비계획서	2019
5	예천군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0
6	원주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19
7	의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0
8	청도군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1

2) 대상은 영주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소재하며 지역 환경이 유사하여 비교에 유용한 예천군, 의성군, 고령군, 영덕군, 청송군, 남해군, 원주시 등을 선정했다.

2. 이론적 배경

2-1. 농촌사회의 현실

과거 농촌의 경우, 하나의 가족단위 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업량이 많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고, 협동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연대 또한 강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농촌사회는 과거 품앗이처럼 힘든 농사일을 서로 도와주었던 공동체적 활동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유대관계 역시 약화되고 있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와 이에 따른 지역 활력 감소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주목하여 청년인구의 농촌 유입을 통해 활력증진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사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연히 농촌 공동체의 활성화는 마을을 구성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적 주안점이 사람의 수, 즉 인구증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사람의 수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타인과 유대관계를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반면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 사생활 침해나 구속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려 한다. 즉 공동체 활동이 많게 되면 자신이 어떤 성격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 개인적 내용이 모두 알려지게 되기도 하며, 이런 가운데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공동체 활동의 참여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생활에 있어 자유를 제한받을 경우도 발생한다³⁾. 때문에 농촌사회에서의 공동체는 유대관계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방향을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거 마을의 공터나 장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었다. 많은 사람이 장터에 나와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그러나 요즘 농촌도시의 외부공간은 조용하다. 특히 마을의 실외공간은 한적하다. 축제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장이라도 열리지 않으면 옥외공간에서 물건을 팔거나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악을 듣거나 연주를 하거나 어린이가 뛰어 놀거나 하는 풍경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모든 것이 실내공간으로 들어와 버렸다. 아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변했고, 슈퍼마켓으로 변했다. 기후나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실내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던 활동이 대부분 실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 실외 공간을 활용해 왔던 여러 공동체의

3) 山崎 亮, 커뮤니티디자인의時代,中公親書, 2012, p.7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2. 공동체 구성요소

지역공동체 혹은 커뮤니티(Community)라고도 하는 공동체는 지리적 측면의 중요성이 약해지면서 특히 농촌지역에서 공동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힐러리(Hillery, 1955)⁴⁾에 의하면 "공동체란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정의하고 공동체가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혹은 연대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지리적 영역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 사회의 주민들의 삶은 빈번한 대면과 긴밀한 상호작용, 유대감 등이 일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공간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동체는 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고 지리적 근접성은 약화되었다. 버나드(Bernard, 1973)⁵⁾는 지역적인 특성보다 개인적 친밀감, 사회적 응집력, 정신적인 관여, 연속성, 감정적인 깊이 등을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실천적 공동체로서 협동적 주체로서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해를 고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적 소통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⁶⁾. 공동체 생활에서 주체적 개인의 참여를 높이고 호혜적이며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위해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의 '성미산 마을 공동체'의 경우 형성과정은 육아공동체로 출발했지만 이후 생활공동체로 확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마을 축제나 체육대회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주도하게 이른다. 이처럼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형성의 목적이나 배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가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공동체의 협력에서 사회적 응집력, 감정적인 깊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4) Hillery, G. H.,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20 No.2, 1955, pp.12-24

5) Bernard, J., The Sociology of Community,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 1973

6) 강대기, 패러다임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농촌사회, Vol.13 No.2, 2003, pp.7-40

2-3. 테마형 커뮤니티디자인

공동체 활동은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대안적인 지역사회를 스스로 건설하는 운동(김현 2003)7) 수준을 뛰어넘어 주민들이 생활문화를 공유하고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가 필요하다. 퍼남(Putnam)과 로버트(Robert)8)는 이탈리아의 사회발전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북부 이탈리아와 남부이탈리아의 역사발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노래 동아리(choral societies)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북부 이탈리아에 있어 동네마다 결성된 노래 동아리가 사람들 사이에 협동과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소영(2010)9)에 의하면 문화예술단체인 원주의 광대패 '모두곶'과 극단 노들의 '후용공연예술센터', 진주의 극단 '큰돌' 등 예술공동체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들 공동체는 문화예술의 추구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여 형성된 조직으로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성을 기반 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내기도 하며, 또 다른 예술공동체를 생성시킨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문화예술 및 여가적 요소가 '공동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사례다.

이상의 예술공동체와 더불어 취미, 복지, 환경 등 동일한 목표나 테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테마형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둑서클, 테니스클럽, 노래서클, NPO활동 등으로 이러한 종류의 테마형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은 필히 같은 지역에 거주할 필요가 없고 흥미와 관심이 같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커뮤니티에 소속해서 활동이 가능하다는 공간적 장점이 있다. 특히 테마형 커뮤니티의 경우 마을의 외부공간(유후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테마형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10). 예를 들어 테마형 커뮤니티디자인에 의해 옥외공간이 즐거운 장소로 바뀐 사례로 호고현(兵庫縣) 아리마후지공원(有馬富士公園)의 경우가 있다11). 공원

주변에서 활동하던 40개 이상의 테마형 커뮤니티가 각각의 활동을 공원 내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방문객을 즐겁게 할 상설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연 만들기, 연날리기, 수상곤충 관찰회, 마을탐험, 컴퓨터교실, 음악 연주회 등의 프로그램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각각의 커뮤니티가 독자의 팬을 만들고, 활동을 통해 방문객을 유도하면서 공원 방문객 수를 늘렸다. 이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테마형 커뮤니티의 조합이라는 커뮤니티디자인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해당 공간의 활성화는 물론 주변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공조될 수 있도록 전파시킨다는 점에서 커뮤니티디자인이 필요하다.

3. 사례분석

3-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액션그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12)의 경우, 2010년 이후 일 반농산어촌 1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00개 시군을 지원할 예정으로 진행 중인 정부사업이다. 본 사업은 말 그대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배가시키는 것으로 그 매개고리를 '사람과 조직'에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사업 종료시 지역발전을 고민하고 전략을 구상, 실천하는 사람(조직)이 남아 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농촌사회의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처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조직)이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본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 조직은 액션그룹이라 할 수 있다. 액션그룹의 수는 다양할 수 있지만 각 액션그룹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자(개인, 공동체, 협동조합, 법인 등)로 구성해야 한다. 즉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액션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성, 지속성을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때문에 액션그룹은 사업테마 및 기존 조직이나 단체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존 개인이나 조직은 물론 신규로 새로운 인적자원을 발굴하기도 한다. 특히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충분

7) 김현, 부산의 CF제작환경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역사회, Vol.45, 2003, pp.128-138

8)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9) 윤소영, 앞의 논문, pp.11-13

10) 山崎 亮, 앞의 책, p.13

11) 山崎 亮, 앞의 책, pp.17-22

12)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농촌 신활력증양계획 지원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이해, 2019

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및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액션그룹을 발굴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결국, 액션그룹은 지역의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공익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조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액션그룹의 역량강화를 중시해 단계별 사업진행을 권유하고 있다. 1단계는 ‘참여유도 및 사업 참여자(액션그룹) 발굴단계’로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의제를 발굴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논의하고 실행할 사람을 발굴한다. 여기서는 참여조직 워크숍, 핵심그룹 인터뷰 등의 프로그램 운영한다. 2단계는 ‘기초 및 심화교육단계’로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공익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활력아카데미 및 선진지견학 등의 프로그램 운영한다. 3단계는 ‘시범사업 지원단계’로 교육을 통해 배양된 역량을 실천할 수 있는 활동(사업)을 결정하고 발굴된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팀원들과 함께 소규모 프로젝트를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단계는 ‘네트워크 지원단계’로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지던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 기존활동조직간, 기존 활동조직과 신규 활동조직간 신규활동조직의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세부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3-2. 액션그룹 현황 및 유형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8개 지역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액션그룹의 현황을 조사하여 표로 정리했다.(표 2~9 참고) 먼저 고령군의 경우, ‘도시민과 농촌민이 함께 상상과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미래 ‘귀농귀촌 No.1 대가야’라는 비전을 세우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는(One Stop Service) 공동체(도-농) 문화교류의 장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단위의 과제와 총 11가지의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15그룹의 활동조직을 선정하고 있다¹³⁾.(표 2) 남해군은 ‘사람이 모이는 남해, 살고싶은 남해 만들기’라는 비전과 ‘농업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마을, 함께하는 일자리, 안정적 농촌소득 만들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6개의 액션그룹을 조직하고 있다¹⁴⁾.(표 3) 영덕군은 ‘Y3 참여중심의 맑은 생활 공동체 플

랫폼 구축’이라는 비전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참여하는 지역사회/균형적 참여로 성장하는 공동체/지역확산을 위한 공익적 가치 증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0개의 액션그룹을 조직하고 있다¹⁵⁾.(표 4) 영주시는 ‘명품농업 榮州永住’라는 비전과 ‘영주농산물 질향상 및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지역경제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강화/미래농업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자립적 운영주체 양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2개의 액션그룹을 6개 단위로 그룹핑하고 있다¹⁶⁾.(표 5) 예천군은 ‘지역농특산물과 곤충자원 융합을 통한 미래 농업업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예천’이라는 비전과 ‘인재양성 및 거점 조성/곤충 융합산업 기반구축/융복합 상품 시장확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4개의 액션그룹을 조직하고 있다¹⁷⁾.(표 6) 원주시는 ‘원주푸드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활력화’라는 비전과 ‘원주푸드 기초역량 강화/원주푸드 연계영역 확장/원주푸드 문화 확산/다면적 종합지원시스템 마련’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개의 액션그룹을 조직하고 있다¹⁸⁾.(표 7) 의성군은 ‘농촌형 공유경제 메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경제 도시 의성’이라는 비전과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공유기반 조성/공유경제의 경제적가치 창출을 위한 공유경제 Biz모델 구축/공유경제 확대 및 지속화를 위한 공유경제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8개의 액션그룹을 조직하고 있다¹⁹⁾.(표 8) 청도군은 ‘청년친화농촌, 청도(靑Do)’라는 비전과 ‘청년농부 사회역할 강화/청년농부 경제활동 특화/도시청년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4개의 액션그룹을 4단위로 그룹핑하고 있다²⁰⁾.(표 9)

15) 영덕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2, pp.218-219

16) 영주시, 2021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예비계획서, 2020, pp.23-24

17) 예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0, p.61

18) 원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19 pp.37-38

19) 의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0, pp.110-111

20) 청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1, p.99

13) 고령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1, pp.63-65

14) 남해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서, 2021, pp.105-106

[표 2] 고령군 액션그림 현황²¹⁾

구분	단체명	유형
인력양성 (A)	다문화지원센터	테마형 커뮤니티
	고령고등학교(조리과)	테마형 커뮤니티
	금천지구 추진위원회	경제적 커뮤니티
	안림권역 추진위원회	경제적 커뮤니티
	덕곡면 주민자치위원회	경제적 커뮤니티
시설공유 (B)	귀농귀촌연합회	경제적 커뮤니티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제적 커뮤니티
	한옥스테이 지정자	문화 · 관광형
	대가야 체험캠프	문화 · 관광형
프로그램운영 (C)	문화관광해설사모임	문화 · 관광형
	여성농업인연합회	경제적 커뮤니티
	봉이팜관광농원	문화 · 관광형
	생생팜영농조합법인	문화 · 관광형
협력마케팅 (D)	(사)고령군 관광협의회	문화 · 관광형
	고령농협	경제적 커뮤니티

[표 3] 남해군 액션그림 현황²²⁾

구분	단체명	유형
생산기공유 (E)	관음포연꽃마을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남해군여성농민회 새시매공동체	경제적 커뮤니티
	(재)남해마늘연구소	경제적 커뮤니티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섬팜1973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주)채선해	경제적 커뮤니티
	해울림영농조합법인	경제적 커뮤니티
	화전별곡꽃감합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남해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경제적 커뮤니티
	남해농업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새남해농협	경제적 커뮤니티
	전국한우협회 남해군지부	경제적 커뮤니티
	해바리영농조합법인	경제적 커뮤니티
홍보마케팅 (D)	남해신활력플러스공작소	경제적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F)	남해군토종종자사업단	경제적 커뮤니티
	노구마을회	테마형 커뮤니티
	대사마을회	테마형 커뮤니티
	오동마을회	테마형 커뮤니티
향촌관광 (G)	그린메이커	문화 · 관광형
	(사)남해군체험휴양마을협의회	문화 · 관광형
	남해문화사랑회	문화 · 관광형
	남해보물캐는농부들	문화 · 관광형
	두모마을	문화 · 관광형
	상주번영회	문화 · 관광형
	(주)자연이야기	문화 · 관광형
	(주)하이보물섬	문화 · 관광형

21) 고령군, 앞의 자료, p.79

[표 4] 영덕군 액션그림 현황²³⁾

구분	단체명	유형
공동체 (F)	영덕군농업회의소	경제적 커뮤니티
	영덕군농산어촌공동체협의회	경제적 커뮤니티
	(사)쌀전업농영덕군연합회	경제적 커뮤니티
	(사)임업후계자영덕군연합회	경제적 커뮤니티
	영덕군우리음식연구회	문화 · 관광형
유통홍보 (E)	영덕군연합사업단	경제적 커뮤니티
	영덕, 울진축협	경제적 커뮤니티
	영덕군산림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대경농금농협영덕경제사업장	경제적 커뮤니티
	영덕농협	경제적 커뮤니티
	강구농협	경제적 커뮤니티
	영해농협	경제적 커뮤니티
	북영덕농협	경제적 커뮤니티
식품융합 (H)	정보화농업인연합회	경제적 커뮤니티
	영덕로하스수산물지원센터	경제적 커뮤니티
	이상근복숭아병조리	경제적 커뮤니티
	농업회사법인 영플러스(주)	경제적 커뮤니티
	한국양봉협회 영덕군지부	경제적 커뮤니티
	(주)영덕주조	경제적 커뮤니티
	힐림농장영농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고래불배작목반	경제적 커뮤니티
	오포키토산토마토작목반	경제적 커뮤니티
	구미리복숭아작목반	경제적 커뮤니티
전국사과생산협회영덕지부	경제적 커뮤니티	
품목별생산지단체	경제적 커뮤니티	
농촌관광체 (G)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 · 관광형
	영덕군농촌관광연구회	문화 · 관광형
	영덕군송이생산자협의회	문화 · 관광형
	영덕군복숭아정보마을	문화 · 관광형
	영덕군귀농귀촌연합회	문화 · 관광형

[표 5] 영주시 액션그림 현황²⁴⁾

구분	단체명	유형
생산 (E)	영주시과혁신단	경제적 커뮤니티
	사과발전연구회	경제적 커뮤니티
	풍기인삼혁신단	경제적 커뮤니티
	풍기인삼농협	경제적 커뮤니티
	영주시한우협회	경제적 커뮤니티
	영주한우명품화추진단	경제적 커뮤니티
가공 (E)	훈사랑	경제적 커뮤니티
	(주)팜스브릿지	경제적 커뮤니티
	할매목공장	경제적 커뮤니티
유통판매 (E)	영주대장간	경제적 커뮤니티
	영주시농특산물수출협회	경제적 커뮤니티
	코리아팜	경제적 커뮤니티
	영주민영농산물도매시장	경제적 커뮤니티

22) 남해군, 앞의 자료, p.123

23) 영덕군, 앞의 자료, p.436

연구개발 (I)	다잇데이 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영주시 4H연합회	테마형 커뮤니티
	창조적마을만들기(고려장권역)	문화 · 관광형
	풍기능협	경제적 커뮤니티
	안정농협	경제적 커뮤니티
농촌 체험 (G)	소백돌 협동조합	문화 · 관광형
	농촌체험관광교육농장협의회	문화 · 관광형
	녹색농촌체험마을협의회	문화 · 관광형
	영주시기농귀촌연합회	문화 · 관광형

[표 6] 예천군 액션그룹 현황²⁵⁾

구분	단체명	유형
곤충 사업부 (J)	예천곤충유통사업단	경제적 커뮤니티
	예천곤충나라	경제적 커뮤니티
	곰뱅이마을	경제적 커뮤니티
	예천곤충생산지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다인사료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예천햇푸드	경제적 커뮤니티
	선우인섹트아카데미	경제적 커뮤니티
	양봉	경제적 커뮤니티
	예천양잠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예천 정서 곤충	경제적 커뮤니티
예천 곤충마을	경제적 커뮤니티	
농업 부문 (K)	미래농업 청년경영인회	경제적 커뮤니티
	신라 식물원	경제적 커뮤니티
	제이 애듀팜	경제적 커뮤니티
	예천 귀농인연합회	경제적 커뮤니티
	농업법인 장수(장애인)	경제적 커뮤니티
	농업회사법인 (주)드론팜	경제적 커뮤니티
마을 기업 (L)	예천위드제이	경제적 커뮤니티
	흰돌녹색농촌체험마을	문화 · 관광형
	농부창고(참기름)	경제적 커뮤니티
	갯속농장(표고)	경제적 커뮤니티
	착한농부(단수수)	경제적 커뮤니티
	김부자	경제적 커뮤니티
	삼강주막	문화 · 관광형

[표 7] 원주시 액션그룹 현황²⁶⁾

구분	단체명	유형
기반 조성 분과 (M)	원주푸드종합센터	경제적 커뮤니티
	원주교구가톨릭농민회	경제적 커뮤니티
	원주푸드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원주식생활교육네트워크	테마형 커뮤니티
농촌 활력 분과 (N)	상지대학교	테마형 커뮤니티
	원주농가주부모임	테마형 커뮤니티
	원주 농업경영인단체	경제적 커뮤니티
주민 참여	원주시 체험마을협의회	문화 · 관광형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경제적 커뮤니티
	토닥토닥맘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24) 영주시, 앞의 자료, pp.44-45

25) 예천군, 앞의 자료, p.187

분과 (O)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제적 커뮤니티
	원주진로교육센터 세움	테마형 커뮤니티

[표 8] 의성군 액션그룹 현황²⁷⁾

구분	단체명	유형
네트 워크 형 액션 그룹 (P)	청년창업자협의회	경제적 커뮤니티
	4H연합회	테마형 커뮤니티
	강소농	경제적 커뮤니티
	정보화농업인회	경제적 커뮤니티
	귀농귀촌인연합회	경제적 커뮤니티
	의성농식품가공협의회	경제적 커뮤니티
	의성굿웨이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의성전통시장상인회	경제적 커뮤니티
	의성장날영농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농촌체험휴양마을	문화 · 관광형
활기찬농촌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비즈 니스 형 액션 그룹 (Q)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경제적 커뮤니티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경제적 커뮤니티
	농산물직거래연구소	경제적 커뮤니티
	권역별협의회	경제적 커뮤니티
	의성청년(주)	경제적 커뮤니티
	농부달장	경제적 커뮤니티
	신제품개발소모임	경제적 커뮤니티

[표 9] 청도군 액션그룹 현황²⁸⁾

구분	단체명	유형
청년 및 귀농 귀촌 조직 (R)	맘See	경제적 커뮤니티
	청도군 4H연합회	테마형 커뮤니티
	청가연	경제적 커뮤니티
	청도군 귀농인유통사업단	경제적 커뮤니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테마형 커뮤니티
	청도드론방제봉사단	테마형 커뮤니티
	청년창업농	경제적 커뮤니티
농산 물 생산 조직 (E)	친환경딸기생산자그룹	경제적 커뮤니티
	새별이슬농원	경제적 커뮤니티
	청도군탈삼삼연구회	경제적 커뮤니티
	강소농5기 자율학습체	경제적 커뮤니티
	품목별연구회(17개팀)	경제적 커뮤니티
문화 예술 조직	예술인총연합회 청도지회	취미형 커뮤니티
	청춘시대	테마형 커뮤니티
	청도새마을아리랑보존회	테마형 커뮤니티
	청고군천연염색연구회	테마형 커뮤니티
	공꾸는 공작소	테마형 커뮤니티
체험 관광 서비 스 조직 (G)	청사예	테마형 커뮤니티
	경북관광두레주민사업체	문화 · 관광형
	드론농가드	문화 · 관광형
	시그널케어	문화 · 관광형
	청도교육농장협의회	문화 · 관광형

26) 원주시, 앞의 자료, p.161

27) 의성군, 앞의 자료, pp.233-234

섬마더중학교	문화·관광형
산골농장	문화·관광형

3-3. 결과 및 제언

우선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을 ‘구성원들이 어떠한 지역이나 공간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공동체의 유형은 공동체 개념에서 제시하는 공동체 구성요소인 공간 및 공동의 목적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

실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각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비전 및 목표를 전제로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액션그룹은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그 수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 액션그룹은 사업성격에 따라 2~5개 정도의 단위로 묶어 구분하고 있는데 우선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지자체별 액션그룹 구분

지자체	단위그룹									
	A	B	C	D	E	F	G	H	I	J
고령군	○	○	○	○						
남해군				○	○	○	○			
영덕군					○	○	○	○		
영주시					○		○		○	
예천군										○
원주시										
의성군										
청도군					○		○			

지자체	단위그룹									계
	K	L	M	N	O	P	Q	R	S	
고령군										4
남해군										4
영덕군										4
영주시										329)
예천군	○	○								3
원주시			○	○	○					3
의성군						○	○			2
청도군								○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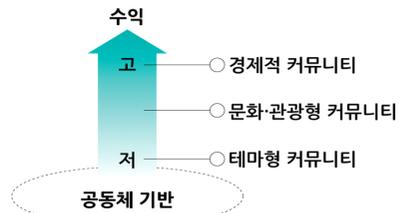
표 2 ~ 표 9와 같이 8개 지자체에서 선정한 액션

28) 청도군, 앞의 자료, p.246

29) 영주시의 경우, 표 5를 보면 6개의 단위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중 생산, 가공, 유통판매는 타 지역의 경우 하나의 단위그룹으로 묶는 경우가 많아, 비교를 위해 이를 통합시켜 3가지의 단위그룹으로 표기했다.

그룹은 표 10의 A~S처럼 19가지 단위의 액션그룹(이하 단위그룹이라고 기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단위그룹 중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이 생산/가공/유통(E) 부문과 농촌체험관광(G) 부문으로 나타나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창출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세부사업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유사한 성격의 단위그룹을 조정, 통합하여 그 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각 지자체마다 비전과 목표가 다르고, 세부사업의 성격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다양한 단위그룹이 나타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한편, 단위그룹에 소속된 여러 액션그룹에 대해 공간 및 지역성, 목적성, 활동내용 및 영역 등을 토대로 유형을 분류하면, 크게 경제적 커뮤니티, 문화·관광형 커뮤니티, 테마형 커뮤니티 등 3가지의 유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경제적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경제적 목적의 수익창출을 지향해 구성된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지역적 연대가 비교적 강한 그룹이다. 문화·관광형 커뮤니티는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공동체이며, 테마형 커뮤니티는 동일한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지역 및 공간적 제약에 비교적 자유로운 그룹이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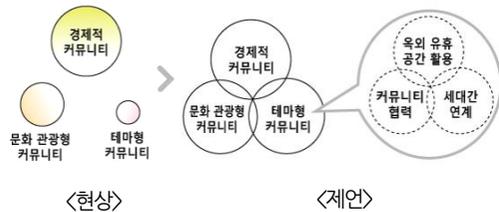
[그림 1] 액션그룹의 공동체적 성격(유형)

여기서 수많은 개별 액션그룹의 명칭이나 단위그룹의 명칭과는 대조적으로 그 유형이 단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문과 함께 동시에 많은 지역민이 공감하는 가치나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경제적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진 액션그룹을 다수 조직하고 있는 반면, 테마형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실제 청도군의 경우를 제외하면 수익이나 소득지향의 경제적 커뮤니티와는 달리 취미, 관심사 등 공동의

유대나 활동에 중점을 두고 형성된 비(저)경제적 공동체인 문화 예술인 단체, 각종 스포츠클럽, 취미서클, 관찰회, 탐구회, 민간비영리단체인 NPO 등의 테마형 커뮤니티의 참여가 부족하다.(그림 2)

특히, 표 2 ~ 표 9와 같이 단위그룹에 편성된 개별 액션그룹을 보면 동일한 유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물론 단위그룹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성격의 커뮤니티로 구성하는 것이 동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소통이나 협력에 의한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안을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단위그룹 내부의 액션그룹간 협력체계는 물론, 단위그룹간의 연결 및 협력체계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때문에 액션그룹 상호간의 소통이나 협력을 추구할 수 있는 횡단적 및 계층적(종단적) 연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성격의 사업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고, 특히 기존 정부제정지원사업에서 구축된 다양한 인프라의 활용과 연계가 강조하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추진했던 과거의 경우와는 달리 지역민들의 참여와 스스로의 마을경영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테마형 커뮤니티의 발굴과 육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옥외 유휴공간의 활용, 커뮤니티간 협력, 세대간 연계를 통한 지속성 확보 등 커뮤니티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



[그림 2] 현상 및 제언

■ 테마형 커뮤니티 활성화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을 보면, “각 액션그룹은 동일한 목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하는 이해관계자(개인, 공동체, 협동조합, 법인 등)로 구성해야 한다.(중략)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액션그룹을 형성해야 한다(30).”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8개 지자체에서 선정된 이해관계자(즉 액션그룹) 유형을 보면 대부분 경제적 커뮤니티나 문화관광형 커뮤니티의 성격이 강하고, 테마형 커뮤니티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원인은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소득창출에 방점을 두고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 더 근원적으로는 농촌 활력증진이나 농촌의 활성화, 풍요로운 농촌에 대한 해석이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된 연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것, 행복 등에 대한 가치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취미나 오락, 건강,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 의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국 테마형 커뮤니티는 지역성을 기반 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내기도 하며, 또 다른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하는 테마형 커뮤니티를 생성시키는 등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커뮤니티간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소득창출이라는 부가적 효과도 기대된다.

■ 옥외 유휴공간의 활용

인구감소는 궁극적으로 세액의 감소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국가의 신규 인프라 구축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고 효율화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 인프라의 활용이 중요하고, 그러한 인프라 중에서도 그 활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옥외공간이라는 것을 액션그룹의 유형이나 활동사항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변둔치를 비롯해, 공원, 광장, 운동장 등 외부공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부족하다. 다행히도 농촌에 있어 외부공간이 살아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장터'이다. 이러한 장터처럼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매니지먼트할 필요가 있고, 여기가 음악이나 취미, 운동, 환경탐구회 등 테마형 커뮤니티가 관여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테마형 커뮤니티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외부공간, 공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커뮤니티간 협력을 통한 경제적 효용 창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단계별 사업진행에 있어 마지막 단계인 '네트워크 지원단계'를 보면, 기존활동조직간, 기존 활동조직과 신규 활동조직간 협력을 통한 사업(활동)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8개 지자체의 액션그룹은 단위그룹별로 동일한 성격의 액션그룹으로 조합되는 경향이 강하고, 액션그룹간 협력은

30)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농촌 신활력증양계획 지원단), 앞의 자료, p.16

물론 단위그룹간 소통이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테마형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결국, 테마형 커뮤니티는 경제적 커뮤니티나 문화관광형 커뮤니티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테마형 커뮤니티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경제적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소득창출을 유발해 낼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 세대간 연계를 통한 지속성 확보

8개 지자체의 액션그룹을 보면, 청년친화농촌을 지향하는 청도군의 경우와 청년인구 유입차원에서 청년층을 연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령층간 연계가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찾아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수생식물 탐구회’, ‘조손가정을 위한 도시락 소풍’ 등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세대가 연대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남녀노소의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생활하는 공간이고, 이들 속에서 공동체로서의 유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만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농촌사회에서는 청년과 함께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포괄적 대상을 아우르는 테마형 커뮤니티의 발굴과 육성이 뒤따라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농촌사회의 공동체 의식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촌의 생활환경 변화는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술문명의 발전과 함께 협력적 작업이 줄어들면서 개인화가 진행 중이고, 공동체 의식이나 유대감 역시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테마형 커뮤니티에 주목했다. 사례분석 대상으로 농촌 활력증진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액션그룹을 선정하고, 이들 커뮤니티의 활동내용 및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농촌 현실을 감안한 공동체 활성화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성격의 사업추진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기존 정부제정지원사업에서 구축된 다양한 인프라의

활용과 연계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테마형 커뮤니티의 발굴과 참여기회 확대, 옥외 유희공간 간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 커뮤니티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세대간 연계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한 커뮤니티디자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본고는 8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액션그룹의 유형과 성격을 규정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즉 단위 그룹의 명칭, 그리고 개별 액션그룹의 명칭, 사업계획서상의 활동 등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공동체 본연의 성격이나 세부적 활동에 대한 정확성은 다소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주목했던 테마형 커뮤니티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된다. 향후 농촌 공동체 활성화 관련 연구의 기본적인 지침으로 활용해 지자체별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강대기, 패러다임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 한국농촌사회, Vol.13 No.2, 2003
2. 김현, 부산의 CF제작환경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향, 지역사회, No.45, 2003
3. 윤소영, 지역의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Vol.5 No.2, 2010
4.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농촌 신활력증양계획 지원단),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이해, 2019
5. Bernard, J., The Sociology of Community,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 1973
6. Hillery, G. H.,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20 No.2, 1995
7. Putnam, Robert D.,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8. 山崎 亮, コミュニティデザインの時代, 中公親書, 2012